

[종합·국제]

‘천신일 증여세 포탈’ 박연차 개입?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세무 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박 전 회장과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의 자금거래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국세청이 태광실업 등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특정 범죄가증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수사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과 의형제를 맺은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서 세무조사 시점에 돈을 직접 받기보다는 주식거래나 자금 투자 등 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해 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천 회장이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를 세종나모여행으로 병합할 때부터 박 전 회장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했으며, 천 회장

檢, ‘千-朴 자금거래’ 전반 수사 주력

주식 시세차익금 비자금 조성 의혹도

지자체장·정치인 등 주말부터 출소환

의 자녀들이 이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7년 천 회장 일가와 세성운행 등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세종나모여행 주식 300여만 주를 306억원(주당 최고 1만2천원대)에 매각하고, 천 회장의 아들 등이 작년 하반기 주당 3천 600~3천800원대에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기는데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천 회장 일가가 이 시세차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검찰은 천 회장이 최대

주주인 세종아이엔씨(구 세종개인박스)의 주식을 박 전 회장의 태광실업이 2003년과 2005년 11억 원어치를, 정산개발이 2006년 7억 원어치를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도 일종의 ‘경제적 이득’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이 세종아이엔씨 주식을 천 회장 부탁으로 차명으로 사준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천 회장이 소유한 조경석을 박 전 회장이 적절한 가격에 사들였는지 등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yna.co.kr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소환 등 기초조사를 모두 마친 뒤 다음주께 천 회장 및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천 회장에게서 청탁을 받았더라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보고서 조작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내에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할 계획이다.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 경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한나리당 H의원 등 정치인, 그리고 현직 지검장과부장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번 주말부터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yna.co.kr



‘中 대지진 1주년’ 희생자 추모

12일 중국 쓰촨성 동허카우 지진 추모공원에서 열린 쓰촨 대지진 1주년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희생된 친인척과 지인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추모비에 새겨진 지난해 대지진 발생 시각이 선명하다. /연합뉴스

中, 신종플루 환자 접촉자 34명 못찾아

발열증세 한국인 2명, 베이징서 격리 조치

중국에서 11일 처음으로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환자가 확인된 가운데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는 중국의 노력이 군사작전을 떠올리고 있다.

중국 위생부는 12일 첫 중국인 신종플루 환자인 바오(包·30)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393명 중 34명을 제외하고는 신원이 모두 확인돼 격리수용 등 의학적 관찰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와 함께 도쿄발 베이징행 노스웨스트항공(NW029편)에 탑승한 승객 238명 중 201명을 찾아냈고, 베이징발 청두행 쓰촨 항공(3U8882편)에 탑승한 승객 150명과 승무원 10명 중 2명을 제외한 158명은 모두 연락이 닿아 의학적인

조치가 이뤄졌다고 위생부는 밝혔다.

베이징에서 확인된 동승자들은 대부분 귀면루 호텔에 격리 수용됐다.

또 이 환자는 베이징에서 하루 머물렀던 항우호텔 역시 폐쇄돼 103명의 투숙객과 직원들은 7일간의 정밀 관찰을 위해 격리 수용됐다.

12일 귀면루 호텔과 항우호텔, 접촉자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 등은 출입이 통제된 채 마스크와 흰색 가운을 입은 방역팀이 소독 및 방역작업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중국 위생부와 공항 등 유관 당국은 바오씨와 같은 비행기에서 탑승한 승객과 같은 호텔에 머물렀던 접촉자를 찾아 격리 수용하느라 24시간 응급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4시간 응급콜센터가 동시에 직접적인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을 통한 안내 등을 통해 신원 파악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베이징과 청두 등을 거쳐 21개성으로 흩어진 동승자들을 3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인됐지만 나머지 미확인자에 대한 주적 조사도 진행중이다.

중국은 또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발열 등 특이 증세를 보이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와 관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2명도 발열 등 신종플루 가능성의 의심되는 증세로 11일부터 베이징의 디 탄병원에서 격리·관찰을 받고 있다.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격리수용된 한국인은 19명이며 이 중 7명은 단순 감기 증상 등으로 판명돼 이미 귀가 조치됐다. /연합뉴스

엎친데 덮친 中… ‘수족구병’ 창궐 80여명 사망

중국 위생부는 최근 들어 수족구병의 전국적인 상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4월 23일 현재 79명의 어린이가 숨졌고 이 전염병이 계속 전국 10개 성에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80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동성 위생국은 11일 최근 수족구병으로 4명이 숨져 신내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생해 이달과 6월에 최대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엔테로바이러스(장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수족구병은 지난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애들과 중국 전역에서 만연해 40여명이 숨졌으며, 2007년에는 수족구병 발병 환자가 8만명에 달했고 그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이었다. /연합뉴스

“제재 발동은 선전포고… 강경 대응할 것”

北 노동신문 ‘미국과 대화 않겠다’ 재확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발동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강경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신문은 12일 ‘주주적 대를 틀어

쥐고 대조선 제재 모략책동을 제압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적대세력들의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이 보다 큰 위험성을 끼고 국제화되고 있다는 것, 현 국제관계에서는 오직 힘 있어야 자주권을 지

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천만번 정당했다는 것,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 대를 무기로 끌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결론과 교훈”으로 얻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사죄를 재자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국(북한)은 이미 선언한

대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자주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집권 후 100일간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 동향을 지켜본 우리의 견해는 그들이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에 광분했던 전임 부시 행정부와 같다”는 것이라며 “우리 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없애려는 구태의연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더니 결과물이 나올 것이 없을 것은 뻔하다”고 대미 대화 무용 입장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성적이 최하위에 속하는 1천개 학교를 해마다 선정해 폐쇄한 후 다시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천개 학교는 미 전역의 학교 가운데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1개 학교당 100만달러에 해당하는 총 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학교와 교사들에게

상대로 레이저처럼 정교하게 초점을 맞춰 개선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적 나쁜 학교 5년간 5,000개 폐쇄”

오바마 교육개혁 시동… 교장·교사 바꿔 재개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예 걸쳐 성적이 부진한 학교 5천개를 폐쇄하고 교장과 교사들을 바꿔 학교를 다시 개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안 닉슨 미 교육장관이

11일 밝혔다. 덩컨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단 한번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성적으로 성적

이니쁜 학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매우 전략적이며 목표를 정교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이 열등한 학교들을 상대로 레이저처럼 정교하게 초점을 맞춰 개선시켜나갈 것”이라고 덩컨 장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성적이 최하위에 속하는 1천개 학교를 해마다 선정해 폐쇄한 후 다시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천개 학교는 미 전역의 학교 가운데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1개 학교당 100만달러에 해당하는 총 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학교와 교사들에게

상대로 레이저처럼 정교하게 초점을

맞춰 개선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웹 011-802-2532
(광주문화 신문집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웹 011-609-5221
(구 상무대 점원)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00평(매기 76억)
보증금 37억/월세 3,000만원 용자 12억

• 토지500평 건물 1,500평(매기 85억)
보증금 7억/월세 6,000만원 용자 4억

▶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숙부지 등)

• 834.5㎡(250평) - 매기 평 13,000원
(풀서비스국장과 미가스박스 증간사거리기도)

• 833㎡(250평) - 평당 880만원

(파인체인 호텔 주변 식당 유동업소 적합)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상무지구 병원 주변 식당 유동업소 적합)

▶ 기타용도

• (농장) 그린밸트 73,000㎡(2만2천평) 평당 9만원(동신동) 장기투자로 좋은 곳

• (창동동) 주거지역 3,760㎡(1,140평)
평당 40만원(현 건설회사 현주자부수)

▶ 호텔, 모텔

• 상무지구 24평 이상 직영(매기 28억)

(2층 유동주점 보증금 3,000만원/월 450만원)

• 현금 45억 투자로 월 수 1억

가능한 모텔 및 호텔 운영상담 환경

및 출판문 발행합니다.

</